

尹 파면이나, 복귀냐...오늘 오전 11시 선고

전북 64억 규모 중견기업 지원

현재 핵심 5개 쟁점 중 헌법·법률 위반 시 “파면 인용”
박찬대 “윤석열 파면될 것...기각은 군사독재로 회귀”
“세계 석학들도 윤석열 복귀하면 한국 위기 심화 우려”

“탄핵소추 인용으로 윤 대통령 파면
이나, 아니면 기각·각하로 즉시 직무
복귀냐”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법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선고를
앞두고 온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
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현
재 판단의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이에 따라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
엄 선포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영장 없
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
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
택한다.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다.

소추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
헌·위법으로 인정된다면 소추가 인용
될 수 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
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
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
일 “드디어 내일, 내일이면 내란 속의
윤석열은 파면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
루 앞 둔 이날 박 원내대표 광화문 천막
당사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헌
법 수호자 헌법재판소가 내일 헌법 파
괴범 윤석열을 주저없이 파면할 것이
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
다.

이어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국
회를 침탈한 계엄군이 기사를 폭행하
고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는 생생한 영
상이 새로 공개됐다”며 “케이블 타이
가 체포용이 아닌 봉쇄형이라던 내란 세
력의 새빨간 거짓말이 들쭉날쭉”이라
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판사의 결정이
늦어져 간첩이 방치되고 있다, 사법부
장악을 위해 계엄을 시사했다”는 김용
현의 진술도 나왔다”며 “내란 속에 윤
석열 파면을 입증하는 증거들은 이미

차고도 넘친다”고 탄핵 인용의 불가피
성을 강조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무
장 군대를 동원한 국회와 중앙선거위
침탈, 정치인과 법조인 체포 지시 등이
모두 확실한 파면 사유”라면서 “노동

자, 농업인, 학생, 종교인, 문화예술인,
교육자 등 각계 각층의 국민은 물론이
고 대표적 보수 인사들조차 탄핵 기각
은 군사독재 시대로 회귀를 뜻하며 헌
법은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
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세계 석학들과 외신들도 윤
석열이 복귀하면 한국의 위기와 혼란
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며 “헌법에 따른 결론은 파면이고 국민
의 명령도 파면”이라고 파면을 거듭 강
조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제주4·3희생자 추념식

3일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 김관
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은행-카카오뱅크 공동대출 ‘혁신금융서비스’ 선정

JB금융그룹 디지털 사업 역량·제휴 능력 재조명
하반기 출시 목표...신용대출부터 점진적 확대

전북은행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
뱅크 전략 파트너사로 인정 받으며 지
역민들에게 혁신적인 공동대출에 돌입
한다.

3일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
종일)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공동대출 혁
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
혔다.

전북은행은, 탄탄한 디지털 사업 역량
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공동대출 서비
스 구축 위한 IT를 구성해 혁신금융서
비스 지정을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했

다.

그 결과, 인터넷전문은행 선두주자 카
카오뱅크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동대출 상품은 전북은행과 카
카오뱅크 간 협의 분담 비율에 따라 공
동으로 고객에게 대출을 지급하는 상품
이다.

특히 두 은행의 신용평가모형을 활용
해 ‘높은 변별력, 리스크 분산, 마케팅
비용 절감 효과’ 등을 통해 고객에게 경
쟁력 있는 한도와 금리가 제공될 것으

로 보고있다.

이에 따라 전북은행과 카카오뱅크 공
동대출은 하반기 출시를 목표로 전산
개발에 착수한다.

전북은행은 “현재 준비 중인 신용대
출 뿐만 아니라 서비스 안정화 이후 금
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상품군 확대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내놔다.

이러한 공동대출은 고객 확대가 절실
한 지방은행과 비테크 기반 인터넷전문
은행의 협업 비즈니스로 각 은행이 보
유한 강점을 잘 활용해 고객과 은행 모
두에게 기여하는 상생 모델로도 평가
받고 있다.

상품은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 대출실
행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다.

전북은행은 광주은행에 이어 공동대
출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선정됨으
로써 JB금융그룹 소속 지방은행 두 곳
모두 공동대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JB금융그룹의 디지털 사업 역량과
제휴 능력이 재조명 받고 있다.

/김영태 기자

담양군수 재선거서
조국혁신당 후보 승리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조국혁신
당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꺾고
당선되면서 호남에서 민주당 독점시대

가 흔들렸다.

2일 실시된 전남 담양군수 재선거에
서 정철원 조국혁신당 후보가 1만2860
표를 획득해 51.82% 득표율로 당선됐
다.

담양군 금성면 출신인 정 당선인은 3
선 군의원을 역임한 현직 담양군 의장
이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군의원에 당선
된 뒤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이번 담양
군수 재선거에 출마했다.

조국혁신당이 호남 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에 2패 끝에 3번째 승리하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독주 시
대를 흔들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전남 영광과 곡
성군수 재선거에서 후보를 냈으나, 민
주당의 아성을 뚫지 못하고 실패했었
다.

/서울=김영목 기자

전북도 산자부 공모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
가 주관한 ‘2025년 중견기업-지역혁신
얼라이언스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
정됐다.

이로 인해 도는 국비 42억 원을 포함
해 총 64억 5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앵커 중견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고급 인재를 양성
하고, 공동 연구개발(R&D)과 산업 생
태계 조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핵
심이다.

전북자치도는 전북대학교를 주관기
관으로, 도내 중견기업인 ‘DH오토리드,
한솔제미칼, 전북지역산업진흥원’이 참
여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에 응
모했다.

지난달 25일 한국산업기술평화원
(KIAT)의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됐다.

사업이 본격화되면 전북대학교 내에
‘중견기업 혁신연구소’가 설치되며, 자
율주행 기술과 이차전지 등 친환경 모
빌리티 관련 핵심 원천기술을 확보하
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석·박사급 전문인재 양성
을 위한 수요맞춤형 교육과정도 운영
된다.

도는 향후 5년간 해당 연구실을 중심
으로 고급 전문인력과 기술을 단계적
으로 확보해 ‘건설기계, 특장차, 농기계
등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연계함으로
써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기
술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
장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은 고
급 전문인력 확보가 핵심”이라며 “이
번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이 도내
핵심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고, 전북
자치도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성장하
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
다.

/김영태 기자

본사 경력기자
오늘 접수 마감

순창군의회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

| 의정방침 |

소통하는 열린 의정
변화하는 혁신 의정
창의적인 선진 의정
발로 뛰는 현장 의정

전북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총력

7월 실효 예정 42개소
14개 시군전체 면적 23.8%
난개발 방지 대책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방지 및 도시환경 보호를 위해 14개 시군과 ‘도·시군 관계관 회의’를 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현재 도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는 총 766개소(38.42㎢)이며, 이 중 올해 7월 실효 예정인 공원은 42개소(9.14㎢)로 전체 공원 면적의 23.8%에 해당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시군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집행·해제계획을 공

유한 후, 실효 대상 공원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관리 방안으로는 ▲보전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등 용도지역·지구·구역지정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 등 계획적 관리 방안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등 인허가를 통한 관리 방안 ▲현황에 맞는 도시·군계획시설 재결정 등이 제시됐다.

시군에서는 도시공원의 현황과 특성에 따라 토지적성과 이용권역을 분석한 후, 적합한 관리 방안을 선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라, 도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기여하는 중요



<사진=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 실효 예정인 도시공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난개발 방지 및 도시환경 보호를 위해 14개 시군과 ‘도·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다.

한 시설”이라며, “실효 대상 공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난개발을 방지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도>

전북자치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산불 예방·대응 총력
시군 대책회의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점검 시군 대책회의’를 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청명, 한식을 앞두고 성묘, 식목 활동과 등산객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조한 날씨와 강풍 등 산불 발생에 유리한 기상 여건이 지속되자 산불 예방과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총 17건의 산불이 발생해 약 42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모든 산불이 쓰레기 소각, 논·밭 두렁 소각, 성묘객 실화, 주택 화재 등 인위적인 실화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와 각 시군은 주요 원인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사전 차단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청명(4.4)·한식(4.5)을 중심으로 대형산불 특별 방지대책을 수립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 소각을 전면 금지하고, 산불 확산 위험이 높은 산림에 대해서는 입산통제구역을 최대한 확대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철저한 준비와 대비만이 소중한 산림과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방축시간(防畝是安)이라는 말처럼, 단 한 건의 대형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 시군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군산, 새만금 종합지원센터 입주 기업·기관 모집

최대 7년까지 입주 가능
연구개발·제품사업화 등
에너지 기업 성장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 혁신 거점인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 및 기관을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새만금 2공구(군산시 새만금산업단3로 33)에 위치한 종합지원센터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연구개발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술 컨설팅, 제품 상용화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기업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소한 종합지원센터는 총 5층 규모로, 1층에는 기업 전시실과 휴게실, 2층에는 회의실 및 구내식

당, 3층에는 운영사무실과 세미나실이 위치하며, 4~5층은 입주기업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이번 입주 모집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M70(연구개발업), M72(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업종을 영위하는 에너지 및 연관 산업 분야 기업·기관이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되며, 최대 7년간 입주 가능하다.

종합지원센터가 위치한 새만금 2공구는 ‘에너지 국가종합실증단지, 수상태양광 종합평가센터,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등 다수의 에너지 산업 관련 기관과 인접해 있어 기술개발 및 실증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 입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청정에너지수소과 또는 전북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는 에너지 특화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산업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는 컨트



<사진=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재생에너지 혁신 거점인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 입주할 기업 및 기관을 3일부터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롤타워 역할을 한다”며 “유망한 에너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모집 및 지원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소방본부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다매체 매뉴얼 제작

화재조사 절차 정리 체계화
현장 시스템 활용도 기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화재조사관 업무 편의성을 높이고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매체 매뉴얼(책자, QR코드, 동영상) 제작에 착수했다.

이 매뉴얼이 완성되면 화재조사 절차가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현장 시스템 활용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다.

소방본부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화재정보 입력 정확성을 높이고 화재통계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화재조사팀장을 중심으로 6명의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매뉴얼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첫 단계로 지난 3일 전북도청 17층 작전실에서 킥오프(Kick-off) 회의를 열어 체계적인 시스템 개선과 실효성 높은 매뉴얼 개발을 위한 세부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매뉴얼 제작 과정은 △의견 수렴 및 실태 조사 △데이터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다매체 매뉴얼 개발 △검증 및 보완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특히 전국 및 전북 지역의 화재 발생 현황을 심층 분석하고 현장 화재조사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완성된 매뉴얼은 도내 15개 소방서 및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화재조사관들이 실무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권기현 119대응과장은 “이번 다매체 매뉴얼을 통해 화재조사관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용적인 매뉴얼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소방본부, 병원 전 심정지환자 구급대응 강화

‘3대 전략 19개 추진과제’
자발순환회복률 향상 계획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가 도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병원 전 심정지환자 자발순환회복률 향상 계획’을 추진한다.

‘자발순환회복률’이란 심정지 환자 발생 후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를 시행해 병원 도착 전 환자가 스스로 호흡과 맥박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된 비율을 나타낸다. 비외상성 심정지환자를 대상으로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그동안 심정지환자 대응 119구급활동을 중점 관리한 결과 심정지환자 자발순환회복률은 2022년 8.6%, 2023년 10.8%, 2024년 14.7%로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2025년 자발순환회복률 더 향상시키기 위해 △3대전략 △19개 추진과제를 설정해 다음과 같은 주요정책을 추진한다.

△‘대도민 교육·홍보’ 강화

심정지환자 최초목격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이다.

이를 위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개최와 체험부스를 운영해 심폐소생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응급처치 집중홍보 기간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관심도를 향상시킨다.

△신속·정확한 ‘119상황관제’

신속한 심폐소생술 지도와 출동 지령이다.

최고 수준 응급처치를 위한 2대의 구급차와 펌프리스 1대를 동시 출동시키는 다중출동체계를 구축해 현장 대응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한다.

△‘구급대원 전문성’ 강화

모든 구급대를 대상으로 심정지상황 팀워크 훈련 및 약품투여 술기 집중 훈련 등을 추진해 구급대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한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생명 존중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략적 계획수립과 실질적인 추진과제를 통해 올해도 자발순환회복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고창부안축협 안우명품관

축산인의 실익도모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고창부안축협은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안안우명품관

고창안우명품관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1길 13
예약문의 : 063-563-6001

부안안우명품관
전북 부안군 부안을 번영로 85-1
예약문의 : 063-581-2349

전북, 중소기업 경영안정 600억 금융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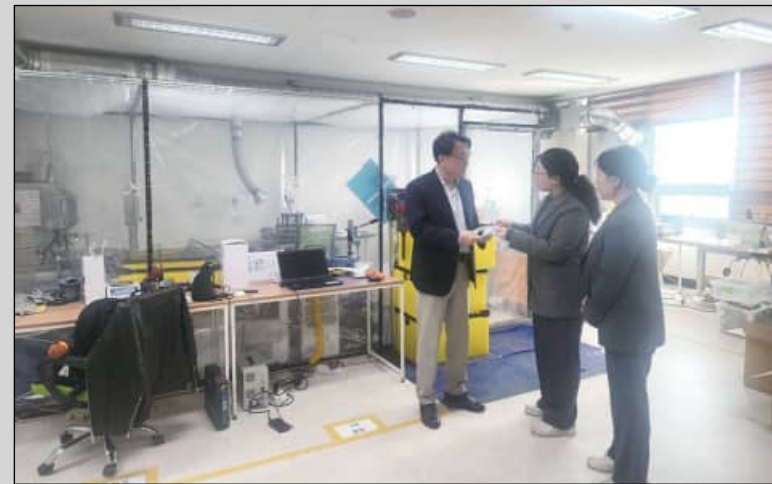
대환자금 200억원, 육성자금 400억원 책정
거치기간 1년 연장·이자보전 2~3% 혜택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내 중소기업 금융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600억 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책을 시행한다. 이번 지원책은 △긴급대환자금 200억원 △거치기간 연장 지원 4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긴급대환자금'은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중소기업이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환기간은 2년이며 2% 이차보전으로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거치기간 연장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원금 상환 중이거나 상황이 임박한 기업을 대상으로 거치기간을 1년 연장하고, 연장 기간 동안 2~3%의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일정 기간 이자만 납부하고 이후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단기적인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긴급대환자금 및 거치기간 연장 지원 사업 신청은 오는 7일부터 온라인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종합지원 시스템, <http://jbok.kr>)를 통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금융지원책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자금 운용과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금융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지방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업체 전북 전주의 ㈜엘립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3일 가졌다. <사진=전북조달청>

전북조달청장, 안전혁신제품 제조기업 방문

한창훈 청장 ㈜엘립 방문
판로 지원 현장소통 강화

전북지방조달청은 재난·안전분야 혁신제품이 공공기관에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 판로 지원에 한창이다.

전북지방조달청(청장 한창훈)은 혁신제품 지정업체 ㈜엘립(전북 전주)을 방문해 제조현장을 점검하고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3일 가졌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화재 초기 대응과 안전한 대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조달청은 재난 대응 안전제

품의 공급 확대와 조달시장 진입 활성화 위한 현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엘립은 착용이 간편하면서도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15분 이상 제거할 수 있는 고성능 화재 대피용 마스크를 개발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해당 제품은 5종 구조의 고성능 필터 모듈과 난연소재, 이중 밀착 설계를 적용해, 대피 골든타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창훈 전북지방조달청장은 "화재 대응과 같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새만금청, '새'로 '만'든 '금'빛 마스코트 '만금이' 공개

'태양같은 금빛' 희망 상징
대국민 정책 접근성 높여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새만금의 긍정적 미래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만금이'를 공개했다. 새만금청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새만금 국가 산업에 대한 대국민 정책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마스코트 '만금이'를 제작했다. 새만금청은 새만금의 긍정적인 변화를 널리 알릴 예정이다. 새만금청 직원의 노력과 의지로 만들어진 '만금이'는 금빛으로 빛나는 태양처럼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해 새만금 임주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새만금을

찾는 관광객에게 웃음과 추억을 선사할 계획이다.

특히 새만금 국가산단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신설 웹툰 '만금상사(가정)' 직원으로서 직장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새만금의 가능성과 숨은 비경을 구석구석 알리는 새만금 홍보 마스코트로 맹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또 국민들에게 새만금 주요 정책과 새만금만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만금이'는 새만금프렌즈 중에 새만금청 직원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이 득표(64%)한 캐릭터로서 새만금청의 홍보를 전담해 새만금의 다양한 행사와 SNS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만금이"가 새만금을 알리는 친근하고 매력있는 메신저가 되어, 지역 경제와 산업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긍정적 미래를 상징하는 마스코트 '만금이'를 공개했다. <사진=새만금개발청>

발전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며 "SNS 등에서 국민과 기업에 맞는 새만금 국가사업 홍보를 시작

로, 새만금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 농어촌공, 농식품부 공간정비·체류형 복합단지조성 선정

광역지원기관 지정 이어
농촌공간 정책지원 확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동인)는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광역지원기관' 지정에 이은 농식품부 공모 '공간정비사업'과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전북지역본부는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광역지원기관'으로 지정됐다.

특히 △농촌공간 재구조화 법정계획 수립지원 △농촌공간 기초지원기관 지

원 △지역협의체 구축 △현장전문가 양성 △시·군 신규사업 발굴 및 컨설팅 등 정부 농촌정책이 시·군에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성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순창군, 장수군과 협업해 농림축산식품부 시범사업(2개 사업) 공모 선정 쾌거를 안았다.

순창군과의 협업을 통해 선정된 농촌특화지구형 공간정비사업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사업 형태로, 유해하거나 유사한 성격의 시설을 이전하고 집적해 농촌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 내용에는 순창군 구림면 소재지를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해 농촌유학생,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주민쉼터를 조성한다.

현재 조성 중인 입산물 산지종합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지정해 공동저장시설, 실습교육장을 확충한다.

또한 관련 시설을 순차적으로 집적화하는 내용으로 사업비 110억원을 확보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장수군과 협업으로 선정된 농촌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도시민들에게 영농과 전원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소규모 주거시설, 텃밭, 교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는 농촌지역 생활인구의 확대를 유도해 농촌소멸 위기로부터 대응하고 더 나아가 귀농·귀촌 인구 확대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지법 개정으로 인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촌체류형쉼터' 제도의 확장판으로 볼 수 있으며, 3년간 사업비 30억 원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전북지역본부는 체계화되고 다양해지는 농촌공간에 대한 정책 변화와 '회복과 치유의 공간'에서 '머무르고, 즐기며, 일하는 공간'으로의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김동인 본부장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계인구 확산을 통한 농촌지역 소멸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며 "지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촌을 가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온누리신협이 다섯번째 점포 곡성지점 개점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온누리신협>

온누리신협 곡성지점 개점...전북-전남 연결 거점 기대

7년 만 자산 2,520억 성장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연수)는 온누리신협(이사장 박근규)이 곡성지점(전남 곡성군 곡성읍 소재) 개점식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곡성지점은 온누리신협의 다섯 번째 점포다.

이날 행사에는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강연수 본부장, 각 지역평의회장, 관내 이사장, 실무책임자, 조합원이 참석했다. 내빈에는 조상래 곡성군수, 강덕구 곡성군의회 의장 등 내외빈 6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온누리신협 곡성지점 개점식을 축하했다.

온누리신협 곡성군은 광주광역시와 남원시 생활권이 중첩되는 곳으로 전북과 전남의 요충지다.

그중에서도 곡성지점은 곡성을 도심부터 위치해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을 비롯한 상가구역과 가깝다. 특히 곡성기차마을은 인근에서 영화 '태극기 휘

날리며'가 촬영된 바 있으며, 가족나들이 명소로 알려졌었다.

온누리신협은 2018년 박근규 이사장 취임 이후 7년 동안 500억 원 자산으로 성장해 2025년 2월 말 기준 자산 2,520억 원을 달성했다.

또 신협은 24년 12월 말 곡성지점 개소 이후, 곡성기차마을 전통시장과의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며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근규 이사장은 "온누리신협 곡성지점은 호남지역을 연결하는 허브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누리신협은 1973년 설립 이래, 신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가 주관한 종합경영평가에서 경영대상 10회, 경영우수조합 12회 선정됐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공동 주관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4년 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김영태 기자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대학교와 청년농업인 육성 협약

졸업생 영농정착 지원·농기계정비 인력 양성
농협중앙회, 1억원 상당 실습용 농기계 기증

농협중앙회(회장 강호동)와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는 전주시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교 대학본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통관심사인 청년농업인 육성 협력을 다짐했다.

주요 협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한국농수산대 재학생 역량개발 및 졸업생 영농정착 지원

△ 효율적 청년농업인 교육을 위한 양기관 교육인프라 공동이용

△ 농기계정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농업노후 연구사업, 인적교류, 탄소중립 관련 프로그램 협력

한국농수산대학교는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농업분야 교육인프라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 상호 상호협력력을 통해 농업의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은 한농대 교육인프라 개선을 위해 1억원 상당의 실습용 농기계를 기증하고, 도서관에 학생들이 쓸 수 있는 휴게공간 설치와 함께 로비에 농업의 쌀 소비촉진 캠페인 등 공익사업과 주요사업, 역사를 소개하는 농업홍보관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에게 농협을 더욱 깊이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농협은 한국농수산대학교 학생들에게 농협사업장 체험교육 마련, 온라인물 전용창구 신설, 농협대학교 교차 강의 개설 등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은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적극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전주시에 위치한 한국농수산대학교 대학본관에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2일 체결했다. <사진=바이오진흥원>

협력해 청년농업인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협력해 청년농업인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송옥진 前 전교조 지부장도 학교 떠날 위기

논란의 M초 담임 맡고, 아동학대 신고 3번·민원 9건 등
해당 학부모 “송 교사 주장은 전부 허위사실… 고발 예정”

지난해 담임교사 6명 교체 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전주 M초등학교에서 또다시 한 교사가 학교를 떠나야 하는 위기에 놓였다.
해당 학교의 담임교사를 맡은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인 송옥진 교사는 개학 3일 만에 아동학대로 학부모에게 신고를 당하고, 담임 교체 민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옥진 교사는 최근 4년 임기를 모두 마치고 다시 분업인 초등학교 교

사로 돌아오면서 지난 2022년부터 시작된 학부모 2명의 지속적인 민원·고발로 논란이 된 전주 M초등학교 담임을 맡았다. 송 교사는 지난해 전북교사노조 등과 함께 해당 학부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송 교사는 “지난 2일 세 번째 아동학대 신고로 직접 학교에 방문한 경찰에 조사를 받았다”며 “해당 학부모는 개학 후 벌써 9건의 공식 민원을 제기했고,

이중 담임교체가 반복적인 민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교체 사유는 부모를 고발한 교사가 어떻게 담임교사가 될 수 있느냐며, 해당 학부모 자녀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어 수업을 듣기 어렵다는 주장”이라며 “작년 형사고발은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노조 차원에서 공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교사는 해당 학교 교장에 △무단으로 수업중 교실에 들어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한 점 △세건의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반복적인 담임교체의 민원으로 교권이 침해

받고 있는 점 △기사와 sns를 통해 학급 시간표를 공개하고, 악의적으로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이유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위 내용이 수용될 수 있도록 서명을 받는 중이다.
이에 해당 학부모 A씨는 “송옥진 교사의 주장은 모두 허위 사실이다. 송 교사가 학생들을 학대해서 우리 아이가 아동학대로 신고한 것은 사실이고, 아이들은 송 교사가 무서워서 수업을 안 받고 경찰이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내용을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송 교사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도교육청,윤탄핵 소추 선고 시청 지침

일선 학교 계기 교육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3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계기 교육 실시 지침을 안내했다.
전북교육청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최근 학교 현장에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헌법, 법치주의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문이 많아 계기 교육 실시 안내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계기 교육 실시 지침을 보면 교육과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회 현안에 대해 학생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한 경우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계기 교육을 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계기 교육은 학생이 질문과 탐구, 토론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잘 활용한다면 교육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과거에 비해 학생들의 시민의식이 성숙해지고 법치주의와 민주시민 등 사회문제에 관심이 커진 만큼 계기 교육에 대한 필요성도 커졌다”며 “시대 흐름에 맞는 계기 교육으로 사회 현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세계대학평가 거점국립대 1위 달성

환경공학과 2년 연속 선정

전북대학교 환경공학과가 세계적 권위의 대학 평가 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2025 QS 세계대학평가 세부 학문분야별 평가’에서 지방거점국립대학 중 2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QS 세계대학평가는 전 세계 1,747개

대학을 대상으로 학계 및 기업계 평판, 연구자의 생산성과 영향력을 나타내는 H-index 피인용 수, 논문당 인용 수, 교수당 학생 비율, 국제 공동연구 실적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평가한다.
전북대 환경공학과는 2022년 처음으로 QS 세계대학평가 순위에 진입(351~400위)한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며 올해는 200위권 초반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지방 거점국립대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로, 글로벌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러한 성과는 BK21 Four 사업, 에너지지산산업 혁신융합대학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최첨단 연구장비와 인프라 확충, 국제 공동연구 네트워크 확대 등 꾸준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김용현 전북대 환경공학 전공주임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환경공학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수업혁신 지원단, 변화 이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3일 전주치명자산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유랑검출에서 ‘2025 수업혁신 지원단 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 수업혁신 지원단 교사 243명 대상으로 한 이 설명회는 전북교육청의 수업혁신 핵심 브랜드인 ‘개념기반 탐구수업’의 연구·개발·적용 과정을 상세히 안내하고, 지원단 교사들의 수업 중심 문화 구심점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념기반 탐구수업’은 교사의 핵심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탐구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지식과 역량을 쌓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전북교육청의 수업혁신 방향이다.
2025년 수업혁신지원단은 19개 교과분과와 5개의 지역분과 등 총 24개 분과로 나뉘어져 개념기반 탐구수업을 실현하기 위한 연구, 자료 개발, 수업 나눔 활동

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개념기반 탐구수업의 실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Q&A로 풀어가는 수업혁신 지원단’이라는 형식으로 풀어내 교사들의 호응과 이해도를 높였다. 주요 내용은 △개념기반 탐구수업, 너는 누구니 △단원 설계는 왜 필요할까 △개개탐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 △1년간 분과 운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수업나눔의 A TO Z 등으로 진행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수업혁신 지원단의 활동은 수업혁신의 핵심인 개념기반 탐구수업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교사의 수업 전문성을 신장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의 질문과 사고력이 살아나는 수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수업혁신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문화공판장 작당, 지역예술가 협업 워크숍

‘나도, 내가 궁금해!’ 운영
5일~20일 매주 토·일요일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오는 5일부터 20일까지 전주남부시장 내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상반기 기획 프로그램인 ‘감정탐구 창작 워크숍-나도, 내가 궁금해!’를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서브컬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5일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를 위해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총 90명의 전주시민을 모집했으며, 매 회차마다 15명씩 참여할 예정이다.
참가자의 감정 표현을 위한 워크숍은 총 3단계 과정으로 이뤄지며, 이렇듯 작가 주도의 소통형 강의를 통해 작품에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뿐 아니라 서브컬처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완성된 작품들은 오는 5월 1일부터 11일까지 문화공판장 작당 스페이스 D에서 전시될 예정이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 6.25 참전 유가족에 화랑무공훈장 전수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6·25 한국전쟁 당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4인에 대한 화랑무공훈장 전수식을 가졌다.
전주시는 3일 복지환경국장실에서 6·25 전쟁 중 전사한 △故 임래선 하사 △故 김완철 하사 △故 김기만 중사 △故 김갑열 일병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도 수여했다.
이날 전수식에는 윤환 무공수훈자회 전북도지부장과 양용식 무공수훈자회

전주시지회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해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함께 기렸다.
화랑무공훈장은 전투에 참가해 헌신·분투하고,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 전과를 올린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훈장이다. 유공자 유족들은 이날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이제라도 공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

전주대·양현고, 자율형 공립고2.0 추진 업무 협약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 이하 전주대)는 양현고등학교(교장 이원형, 이하 양현고)와 자율형 공립고 2.0 추진 및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지난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전주대 대학본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전주대 박진배 총장, 이근호 입학처장, 권이구 기획처장을 비롯해 양현고 이원형 교장, 최한숙 교감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 플랜을 이행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협력 △진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협력 및 학생 진학 역량 강화 협력 △연구 장비 공동 활용 및 지식 정보 및 인력 상호 교류 등을 위해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전주대가 양현고 학생들에게 대학 강점 분야와 연계된 교육과정 및 연구 협력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특화 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등의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민 기자

졸음운전 퇴치꿀팁

1

운전 전에 충분한 수면취하기

2

창문 열고 실내 환기 하기

3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휴식하기

4

앞차가 졸면 경적 울려주기

익산시, 광역전철 시대 앞당긴다

대광법 개정안 통과 계기 광역교통망 구축 지역 편입

철도 도시 익산이 그동안 준비해 온 '전북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에 청신호가 쏠렸다.

숙원 과제였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국비 지원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대도시권의 범위를 기존 '광역시·특별시'에서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가 새롭게 대도시권에 포함되며, 국가 차원의 광역교통망 구축 대상 지역으로 편입됐다.

그동안 대광법 적용 기준에 포함되지

않던 전북권은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전북권에도 광역교통 개선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앞서 시는 이미 2018년 익산을 중심으로 하는 전북 광역전철망 구축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는 등 준비 작업을 착실히 수행해왔다.

익산은 호남고속선과 전라선, 호남선, 장항선 등 4개 철도 노선이 만나는 호남 철도 교통의 중심지다. 시는 익산역을 중심으로 전주·군산·완주·새만금 등 전북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전철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전북권 광역철도 구축'은 익산·새만금신공항과 익산·전주 등 동서축을 잇고 정읍·익산 등 남북축을 연결해 전북 주요 도시를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시는 광역전철망을 통해 도내 주요

도시 간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익산 중심 철도 기반 대중교통 이용률 증대, 새만금 등 대규모 국책사업지와의 연계성 강화, 지역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향후 국가계획 반영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에 대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대광법이 적용되면 광역철도 조성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대광법 통과를 익산은 물론 전북 전체 철도교통 인프라 확충의 전환점이 될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익산이 전북 광역교통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정치권과 협력해 광역전철망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한국가요촌 '달하' 야외 경관대변신

21억투입 26년 완공목표

수국정원조성·야간조명설치

정읍시가 지역 대표 관광자원인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내 '한국가요촌 달하'의 활성화를 위해 총 21억원 규모의 야외 경관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19년 조성된 한국가요촌 달하를 더욱 매력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도비 지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21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비어있는 부지를 적극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핵심 내용은 ▲사계절 아름다움을 선사할 '수국정원' 조성 ▲밤에도 안전하고 운치 있는 관광을 위한 '야간경관조명' 설치 ▲방문객 편의와 인지성 향상을 위한 '진입부 재정비' 등이다.

이를 통해 '달하'를 단순한 가요 전시공간을 넘어, 시민과 관광객들이 언제든 찾아와 쉬고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휴식 공간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현재 '한국가요촌 달하 야외 경관개선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정읍시가 '한국가요촌 달하'의 활성화를 위해 총 21억원 규모의 야외 경관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정읍시>

을 진행 중이다. 조만간 기본설계안을 확정하고 세부적인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사는 2026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가요촌 달하'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백제 가요 '정읍사(井邑詞)'를 테마로 조성된 공간이다.

행사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의

애절한 마음을 담은 정읍사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기리고,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를 함께 조명하는 곳으로 의미가 깊다.

이번 경관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역사적 스토리에 더해 아름다운 자연과 빛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사고발생 위험지역 보안등 개선공사

소룡동금암동나운동 수송로 일원

군산시는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조명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사고 발생 위험지역 개선공사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군산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함께 사고 발생 위험지역 합동점검까진 마친 시는 6월까지 보안등 7개소를 설치하고 노후 보안등 90개소 등기구를 교체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7천만 원이며, 전액 시비로 마련됐다.

공사 구간은 소룡동 일원(외항1길~8길 구간)과 금암동 대명4길, 나운동 수송로 일원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범죄



예방 및 시민 야간 통행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께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통시장 디지털 고도화' 익산이 선도한다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도내 전통시장 중 최초 선정

익산 구시장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잇는 스마트한 전통시장으로 변신한다. 익산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공모에서 익산 구시장이 선정돼, 국도비 2억 4,000여만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상인들과 함께 2022년부터 첫 걸음시장 육성사업, 문화관광형시장 육

성사업 등을 추진하며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공모를 준비해 왔다.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익산 구시장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전통시장 중 최초로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의 고도화 분야 대상지로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2025~2026년 2년간 최대 4억 원을 투입해 익산 구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한다.

전담 인력을 지원받아 온라인 판매·배송 기반을 확충하고 디지털 마케팅

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맞춤형 공동구매 시스템 도입, 배송 서비스 운영, 밀키트 개발 등을 통해 다양한 소비층이 전통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신선한 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전통시장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익산 구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장보기

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청년의 날 청년기획단 공모

25일까지 10명 내외 선발

청년 문화 공유·소통 역할

군산시가 9월 셋째 주 청년의 날을 기념하는 '제5회 군산시 청년의 날 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군산시 청년기획단'을 오는 2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청년 주도형 행사로, 선발된 기획단은 창의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행사에 접목해 ▲기획 ▲운영 ▲홍보 등 전 분야에서 다양한 청년 문화를 공유·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집인원은 10명 내외이며, 선발된 기획단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 동안 활동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 18~39세 청년으로 군산시에 주소를 두거나 군산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생활권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군산=지송길 기자



접수 방법은 군산시 또는 청년뜰 누리집에서 공고문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를 갖춰 e-mail(suran17@korea.kr)로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인원에게는 ▲회의 참석수당 ▲활동 증명서 교부 ▲우수활동자 표창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인구대응담당관(063-454-438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읍시, 농림수산물발전기금 4차 접수 시작

정읍시가 지역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 1% 저리 융자 혜택을 제공하는 농림수산물발전기금 4차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은 농가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가 부담 연리 2%로 융자해주는 사업이지만, 시는 매년 1억원의 시비를 출연해 농업인의 부담을 연리 1%까지 낮춰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어가, 작목반, 농수산물 유통·가공업자,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귀농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자다. 지원 사업에는 농산물 가공 설비, 산지 수매 및 저장, 경영 안정 사

업 등이 포함된다.

특히 18세 이상 45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에게는 더 큰 혜택이 주어진다. 운영자금은 1년간 무이자로 융자되며, 시설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거치기간 동안 무이자 조건이 적용된다.

자금별 지원 한도는 운영자금과 경영회생자금은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이며 시설자금은 개인 10억원, 법인은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하다. 수매·저장 자금은 개인 5억원, 법인 20억원까지 지원되며 상환 조건은 자금 유형과 대상에 따라 2년 일시 상환 또는 3~5년 거치 후 최대 10년까지 균등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 '로컬히어로' 협약 체결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가 '2025 로컬히어로 육성사업'에 선정된 6명의 청년 창업가와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지난해 처음 시작한 이번 사업은 지역의 독특한 자원과 특색을 활용하여 아이템을 개발하고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32팀이 선정 공모에 참여했으며,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분야 전문 평가단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최종 6팀이 선발됐다.

선발된 창업 아이템은 ▲흰쌀 찰보리를 활용한 보리차 티백 ▲맥주효모 삼푸바 ▲박대 껍질을 활용한 클렌징 비누 ▲멸치 스낵 바 등으로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한 청년 창업가들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지난 2일 청년뜰 3층 청년강당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선정된 창업기업과의 공식 협약 체결이 진행됐다.

창업가들은 △시제품 개발을 위한 재료 구입 △제품 브랜딩 △마케팅 △사업모델(BM) 구체화 등에 필요한 사업자금 1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청년뜰은 금전적 지원 외에도 사업 운영 및 추진 일정, 사업비 집행 기준 및 절차, 집행 시 유의 사항 등이 포함된 사전교육도 진행해 효과적 사업수행을 도울 계획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축제의 즐거움은 안전에서”

정읍시가 벚꽃축제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의료지원반을 가동하고, 심폐소생술 등 신속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 보건소는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열리는 벚꽃축제를 앞두고 응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지원반을 구성했다.

이번 축제에는 구급차와 자동심장충격기(AED), 응급구급약품 등을 현장

에 배치하고 장비 점검도 사전에 철저히 완료해 시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건소는 현장에 투입될 간호사들에게 전문 응급구조사를 초빙해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다중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서 예기치 못한 응급사고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정읍=김정인 기자



반려식물이 아플 땐 익산 식물병원으로

익산시가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식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익산시는 식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돕기 위해 '식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식물병원은 약 220㎡ 규모의 온실에 진단실과 화분실을 구분해 운영하며 △각종 병해충 △생육 불량 △온도·수분 관리 실패 등 다양한 식물 문제를 전문가의 손길로 치료한다.

진단과 치료에는 전문 인력과 관련 기자재가 투입되며, 당일 진료와 처방이 원칙이지만 상태가 심각할 경우 일정 기간 화분실에서 무료로 집중 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치료 이후에는 식물별 특성에 맞는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필요시 재배 교육도 병행해 식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익산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진료 신청은 기술보급과(063-859-4979)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유니세프 지방협, 완주 아동정책 주목

‘아동친화 선도’ 완주 방문 정책 공유·국제교류 논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이 전국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은 완주군을 방문, 2025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사업보고와 완주 아동친화도시 정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바울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3일 완주군에서 추진업무 및 예산현황, 임원진 현황을 보고하고, 국제교류 강화를 위한 몽골 방문 계획을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이날 완주군과 지방정부협의회의 협력방안도 함께 진행했다.

사무국은 완주군이 전국 최초로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를 설립해 아동권리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점을 높이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이 전국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을 받은 완주군을 방문해 정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완주군>

사고, 어린이청소년 의회, 아동권리영 화제, 아동참여예산사업 등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군은 이번 협의를 통해 아동친화적인 정책 모델을 공유하고, 협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산불 비상 경계령…드론 활용 예찰 강화

청명·한식 인력배치 총원 주요 산림 입산 금지 조치

남원시는 경남 산청·하동 산불 등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순 없는 날’이라고 해 묘지를 이장하는 ‘청명’(淸明·4월 4일)과 ‘한식’(寒食·4월 5일)이 다가옴에 따라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산림녹지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산불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등산로·입산통제구역에 대한 순찰과 홍보를 강화하고 주요 산림 지역과 등산로에는 입산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또한 산불 감시원이 퇴근한 후 불씨 취급 차단을 위해 감시원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로 조정하고, 묘지 이장 등 대상을 사전 확인해 산불감시 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남원시는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 지리산드론안전구조대(대장 최봉호)와



남원시는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청명·한식이 다가옴에 따라 비상 경계령을 내리고 산불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한다. <사진=순창군>

협약 후 지리산권역 인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산동의 주요 산불취약지에 대해 산불방지특별 대책기간인 4월 20일까지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산불관련 예찰활동은 산불 예방 홍보 뿐만 아니라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도 실시 할 계획으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

벌할 방침이라고 남원시는 설명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건조한 기후와 강풍 등에 따라 남원시 산불의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아 대형 재난으로 확산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시간의 부주의로 큰 피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예방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올해 군민의 장 수상자 3인 선정

윤흥관씨 전통문화 계승
이동주씨 농악 보급
안준태씨 교육 헌신 공로

순창군이 2025년도 ‘순창군 군민의 장’ 수상자를 선정했다.

군민의 장은 순창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공적이 큰 순창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군은 지난 1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순창군 군민의 장 심사위원회를 열고 2025년도 순창군 군민의 장 문화장에 윤흥관(65세)씨, 공익장에 이동주(79세)씨, 애향장에 안준태(88세)씨를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문화장 수상 대상자인 윤흥관 씨는 전통 장승문화의 맥을 잇고 있는 공예가로 복흥면 추령장승촌 관광지원의 개발과 지역문화 행사 발전, 장승을 통한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공익장 수상자인 이동주 씨는 농약강사 및 순창국악원 부원장·원장을 역임하며 20년 이상 농악 보급에 힘써왔다. 또한, 읍면 농악단 창단과 지도, 주민자치위원회,



문화장 윤흥관

애향장 안준태



공익장 이동주

애향분부, 자율방재단 활동 등 지역 공동체 의식 고취와 주민 화합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애향장 수상 대상자인 안준태 씨는 동계면 출신 재경 향우로, 문교부 등 교육 행정을 통해 순창군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왔으며, 제13대 재경순창군향우회장과 재경동계면향우회 초대회장을 역임하며 향우 간 교류와 단합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160여 년 전통의 이계재 서당을 중건하고 마을 정비를 위한 토지를 무상 기부하는 등 고향 발전을 위한 헌신이 인정됐다.

/순창=박지현 기자

순창군, 대형산불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순창군은 3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봄철 대형 산불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최영일 군수와 염기남 부군수, 그리고 13개 실무반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들이 참석해 각 부서 임무와 산불 대비 상황을 보고하고 문제점을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지난달 26일 쌍치면 용전리 산불 발생 직후부터 이틀에 걸친 진화 과정에 직접 참여해 현장을 진두지휘한 최영일 군수는 산불 주관 부서인 산림공원과 순창형 산불 대응매뉴얼을 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어, 이날 발표된 산불 대응 행동매뉴얼이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새롭게 정비된 매뉴얼은 단계별 진화 인력 투입 계획, 조별 책임자 지정 운영 방안, 안전장비 착용 등 진화 과정에서의 사고 예방과 인력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연일 휴일 없이 비상근무에 힘쓰고 있는 산하 직원들을 격려하고 산불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추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영양교육·아로마테라피 진행

완주군이 관내 재가 암 환자 및 가족 40여 명을 대상으로 재가 암 환자 자조모임을 운영에 큰 호응을 얻었다.

3일 완주군에 따르면 군은 관내 암 치료 경험이 있는 재가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조모임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암 물리쳐! 더 건강한 내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암 환자들 간 치료 극복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며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정희 군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강사로 나서 암환자의 건강한 저염식 영양 섭취 강의와 저염식 찜장 만들기 실습이 진행됐다.

또한 전북권역암생존자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한 교육으로 재가 암 환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아로마테라피와 참석한 재가 암 환자들에게 영양 보충식품이 제공됐다.

암은 다른 만성질환과 마찬가지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해 식습관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스트레스, 우울 등 정서적 관리도 중요하다.

한명란 건강증진과장은 “앞으로도 재가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운영과 더불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환자들의 암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심리적 안정을 돕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청소년참여위 21명 위촉 정책 제안·모니터링 활동

남원시는 지난 2일 시청 회의실에서 ‘제17기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자치기구로서 9세부터 24세까지의 지역청소년 중 관련 기관과 학교장 추천으로 위촉했다. 이번 17기는 총 21명이 선별됐으며, 올 한 해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형식적 역할을 넘어 △청소년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안 △청소년의 권리와 인권에 대한 모니터링 △청소년관련 다양한 캠페인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제17기 남원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출범은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 장수어르신 건강 기원 ‘구곡순담 백세잔치’ 연다

순창·구례·곡성·담양 함께 게이트볼 대회·마당극 등

순창군이 오는 18일, 장수의 고장다운 특별한 행사를 개최한다.

순창·구례·곡성·담양군이 함께하는 ‘구곡순담 100세잔치’가 순창군 장애인체육관과 양지천 쏘잔디 길 일원에서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번 축제를 주최하는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협의회는 2003년에 창립돼 대한민국 대표 장수지역으로 손꼽히는 네 지역이 함께 어르신들의 장수와 건강 증진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를 지속

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회장군인 순창군은 같은 날 열리는 장수노인 파크골프 및 게이트볼 대회와 함께 이번 축제를 연계해 더욱 풍성하게 준비했다.

오전 10시부터 장애인체육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00세잔치에는 구곡순담 네 지역에서 선정된 95명의 장수 어르신과 관람객 등 총 500여명이 참석해 축하의 장을 빛낼 예정이다.

행사의 백미는 ‘장수비결, 이곳에 있소이다’라는 흥미로운 주제로 준비된 장수기원 마당극이다. 이 마당극은 실제 지역 어르신들의 생생한 장수 비결

을 재치 있게 풀어내 참가자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이후에는 분홍빛 쏘잔디 물든 양지천으로 자리를 옮겨 특별한 추억 쌓기 시간이 마련된다. 장수 가족사진 인생네컷 촬영 등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 담기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으며, 올해 첫 개최되는 ‘참드림 여행 축제’와 함께 봄나물의 향연까지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행사로 꾸며진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구곡순담 장수벨트행정 협의회가 계획한 다양한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주민참여예산 대폭 증액…재정 투명성 강화

예산 제안사업 공모

완주군이 주민참여예산 사업비를 대폭 증액하며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군은 3일 ‘202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30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14억 4,000만 원이 증가한 총 98억 원으로, 완주 군민뿐만 아니라 완주군 내 사업체 임직원도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공모 대상 사업은 군 단위 정책사업과 읍면 단위 지역사업으로 구분된다.

군 단위 정책사업은 △군 정책 △아

동·청소년 △청년 △사회적경제 △문화·관광 △농업 등 6개 분야이며, 읍면 단위 지역사업은 △주민생활편익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이다.

다만, 기존 추진 중인 유사·중복사업, 법령 위반 사업, 국고보조사업 및 타 기관 소관 사업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역 간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와 면적을 반영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정했으며, 읍면 단위 지역사업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 혜택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지역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편익사업의 비율

을 높였다. 사업 제안은 완주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사업은 5월부터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읍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사, 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6년 유효해 완주군수는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군은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를 통해 접수된 683건 중 641건을 반영해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 입주 세방(주), 지역사회 공헌 ‘앞장’



완주군 테크노밸리2산단에 입주하는 세방(주)이 지역 공헌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3일 군에 따르면 세방(주)의 사회공헌 재단인 세방이의순재단(이사장 이의순)이 완주군 지역아동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총 21개소에 2,100만 원 상당의 필요 물품을 지원했다.

이번 사회공헌 활동은 지난 2024년 5월, 완주군청과 세방이의순재단의

협약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세방은 취약계층 아동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다.

물품은 센터별 수요조사를 거쳐 선정됐으며, 각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스마트 모니터, 에어컨, 냉장고, 학습용품 등이 맞춤형으로 전달됐다.

한편, 세방이의순재단은 세방그룹 이의순 명예회장이 사회공헌을 위해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으로 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 차량지원사업, 장애인 전통월세어배터리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긴급지원, 개발도상국 저소득 지원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예비회원 가입 신청

남원시가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 네트워크 예비 회원으로 지난달 31일 가입신청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청은 남원시가 한국 전통음악의 중심지로서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음악창의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지역 음악 산업 및 문화적 가치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는 전 세계 도시들이 문화, 예술, 전통 등 창의적인 분야에서 협력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협력 연결망이다. 전 세

계 112개국, 350개 도시가 가입돼 있으며 우리나라는 12개 도시가 가입돼 있다. 남원시는 이번 예비회원 가입신청을 통해 유네스코의 심사를 거쳐 정식 음악창의도시로서의 자격을 확보하고 국내외 음악 관련 행사 및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예술과 문화의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 인정받을 경우 남원시는 국제적인 네트워크와 협력의 기회를 얻고 다양한 음악 축제 및 공연을 통해 전 세계와 문화적 소통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남원=정하복 기자

2025년 4월 4일

금요일

무주읍 서면마을·설천면 벚꽃축제…기대 만발

벚꽃이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오는 5일과 6일에는 무주읍 서면마을 소이나루공원 일원에서 제3회 벚꽃축제가 열린다.

서면새마을회(회장 신기상)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전통혼례와 상여행렬'을 시작으로 난타 및 가수 공연이 진행되며 보물찾기와 신나는 예술버스 공연 등도 흥을 불러 넣을 예정이다.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는 설천면 상평지 사냥보 위 교랑 옆 광장에서 제6회 설천뫼작금 벚꽃축제가 열린다.

설천면 부녀회(회장 양봉자)와 외식업협의회(회장 서숙자)에서 파전을 비롯한 잔치국수 등 다양한 먹거리를 준비할 예정으로 벚꽃길을 걸으며 맛보는 향토 음식 맛이 색다른 운치를 선사할 예정이다.

무주구전동 33경 중 1경인 라제통문에서 2경 은구암까지 2.2km 구간도 구전동 벚꽃길로 잘 알려진 곳으로 주변의 절경과 어우러진 꽃길을 탄성을 자아낸다.

무주군 관계자는 "일상에 지친 마음, 벚꽃길 아름다운 자연특별시 무주에서 달래 보시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상반기 장학금 선발·접수

(재)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은 지역의 인재를 지원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 장학생'을 선발한다.

2025년 상반기 장학금은 총 9개 분야로 △대학생 반값등록금 △대학생 주거비 지원 장학금 △대학생 희망장학금 △특기 장학금 △예체능문화인재육성 장학금 △특성화 장학금 △대학·비진학 창업·취업 학원비 및 자격증 취득 장학금과 고등학교를 통해 신청하는 △고등학생 성적우수장학금 △지역고교입학우수자 장학금이다.

이번 장학금과 관련해 주목할 점은 대학생 주거비 지원장학금 지급 대상이 기존 2학년에서 1학년으로 확대된 점이다.

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듀페이 입학격려금 제도 시행으로 중북에 해당해 지급 중지된 중·고등학교 신입생 장학금 재원을 활용한 것으로, 대학 신입생 때부터 학부모들의 학비 경감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장학금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재단 사무국을 방문하면 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가족센터, 위기 가족 지원 '온가족보듬사업' 첫 시행

임실군가족센터가 올해 처음으로 '온가족보듬사업'을 도입해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위기 가족을 지원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선다.

온가족보듬사업은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을 맞거나,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기능의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심리·정서 상담 △긴급 돌봄 및 자녀 양육 지원 △가족기능 회복 프로그램 △사회적 자립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 구성원 간 소통을 촉진하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함으로써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심민 군수는 "온가족보듬사업은 도움이 절실한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임실군에서도 처음 시행되는 만큼 지역 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위기 가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 5일 개막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첫 번째 축제, 반려견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첫 번째 축제인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가 오는 5일 화려하게 열린다.

군은 오는 5일부터 6일 이틀간 옥정호 출렁다리 앞 특설행사장에서 임실 방문의 해와 만나는 특별한 축제인 2025 옥정호 벚꽃축제를 개최한다.

축제 기간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양한 공연과 전시 등을 운영한다.

특히 개막식 이후 마련된 축하공연에는 불타는 트롤맨 손태진, 트로 프린스 양지원, 트롯 다람쥐 강혜연, 트롯 오정 김다현이 출연해 축제 방문객들에게 흥겨운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체험존에서는 △벚꽃비즈 벚꽃공예 △도자기 체험 판매 △옥정호 인생 사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며, 먹거리존은 다양하고 가성비 높은 간식 등을 판매할 예정이다.

먹거리존에서는 윤양면 어머님들의 깊은 손맛을 자랑하는 소머리국밥과



2025년 임실 방문의 해 첫 번째 축제인 임실 옥정호 벚꽃축제가 오는 5일 화려하게 열린다. <사진=임실군>

다양한 치즈 먹거리와 닭꼬치, 김밥, 떡볶이 등 푸드트럭 등이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특히 윤양 한우특화거리에 최근 문을 연 '옥정호 한우'도 정경 임실에 자란 한우고기가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올해 임실군 옥정호 벚꽃축제는 반려견과 함께 할 수 있는 '임실에서 우리 함께 꽃길 걷기'라는 이벤트가 준비돼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40팀(명)이 참여하는 이번 이벤트에

/임실=한병열 기자

세계 태권도 성지 무주, 국제대회 잇따라 개최

옥타곤다이아몬드 이어 그랑프리 챌린지 유치 관람객 유치 전력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3일 세계태권도연맹 서울본부에서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환)과 '2025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 및 그랑프리 챌린지대회' 개최 도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대회 개최지를 '무주'로 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조직위 구성과 대회 운영 방식 및 절차, 그리고 기관별 역할을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무주군과 태권도진흥재단이 공동 조직 위원회를 맡아 대한태권도협회와 같이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 및 그랑프리 챌린지대회를 주관할 예정으로 무주군은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예산확보, 대회 홍보, 관람객 유치 및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게 된다.

황인후 무주군수는 "2023년 개최된 그랑프리 챌린지에서 박태준, 서건우 선수 등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배출됐던 만큼 이 두 대회가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올림픽 등용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7월에 개최 예정인 '2025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에는 20개국에서 6백

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태권도 겨루기 종목에서 경기를 치르며 '2025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에는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60개국의 2천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남녀 각각 4등급으로 토너먼트 경기를 치르게 된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 1월 태권도진흥재단과 성공적인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오는 5월 '2025 세계 카펫 태권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UAE 푸자이라에서도 '2026-2027 세계태권도 그랑프리 시리즈 대회' 유치를 위한 프리젠테이션에 참가할 예정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제5회 장수트레일레이스 최대 규모 열린다

6개 코스 진행·4~6일 열려 3일간 약 2천5백명 참가 장수 자연경관 체험 기회

'한국의 사모니'를 꿈꾸는 전북 장수군에서 '제5회 장수트레일레이스'가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장수군이 주최하고 ㈜락앤런이 주관하는 '제5회 장수트레일레이스'는 70K, 38K-P, 38K-J, 20K, 5K, 4K-VT 총 6개 코스로 진행될 예정이며, 4일 4K-VT 코스를 시작으로 5일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진다.

특히 국내와 해외 선수를 포함해 약 2,500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이다.

트레일러닝은 인공 트랙이나 아스팔트 도로가 아닌 잔디나 흙, 숲길 등 자연을 달리는 스포츠로 '장수트레일레이스'는 장수군의 주요 관광명소인 장



안산, 팔공산, 동촌리 고분군, 승마로드 등을 배경으로 펼쳐져 참가자들이 장수만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운문으로 체험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대회가 열리는 본 행사장에서는 장수군의 고품질 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는 농산물 판매 부스, 다채로운 먹거리와 체험부스 뿐만 아니라 행사

를 후원하는 각종 브랜드의 부스도 운영돼 참가자들과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훈식 군수는 "앞으로도 '장수트레일레이스'를 통해 선수들과 방문객들이 장수만의 독특한 매력을 한껏 느낄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주)파크프로, 파크골프 生 발전 맞손

파크골프 기반 확대 기회 전국 규모 대회 개최 등 협력

진안군이 국내 파크골프 산업 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문 기업과 손을 잡았다.

군은 3일 군청 상황실에서 ㈜파크프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파크골프 기반 확대 및 전국 규모 대회 개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백승찬 ㈜파크프로 대표이사, 정봉운 진안군체육회장, 김창주 진안군파크골프협회장이 참석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 국내 파크골프 인구는 현재 25만 명에 달한다. 진안군 역시 파크골프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오는 5월 17일부터 6월 1일까지

전국 규모의 '진안홍삼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약을 체결한 ㈜파크프로는 2022년 설립된 파크골프 전문 기업으로, 혁신적인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내 파크골프 산업화에 앞장서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파크골프 산업의 질적 향상과 대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진안군, 지역농산물 판로 확대 나서

무릉팜(주)농업회사법인 (주)샐러디와유통 확대 프랜차이즈 협력 구축

진안군이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 확대를 위해 민간 기업들과 손을 맞잡았다.

군에 따르면 3일 무릉팜(주)농업회사법인, ㈜샐러디와 함께 유통업 샐러드용 상추의 유통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 날 협약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무릉팜 석재경 대표와 ㈜샐러디 안성원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와 프랜차이즈 기업 간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군은 납품 농가의 안정적인 샐러드 채소 생산을 위해 시설하우스 개보수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농가들이 보다 체계적인 환경에서 생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안성원 ㈜샐러디 대표는 "무릉팜과 진안 농가가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참여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원활히 유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농업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 확보 사활

무주군이 국제태권도사관학교(태권도 종합수련센터) 설립 관련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군 최정일 부군수를 비롯한 태권도 관련 공무원들은 지난 3일 세종문화체육관광부를 찾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와 설계비 등 2026년도 사업비 30억 원을 정부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최정일 부군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 관계자를 면담한 자리에서 "국제태권도사관학교설립 사업은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성지 무주에 글로벌 인재 양성 기관을 세우는 일"이라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사업이 제때 추진돼 세계 태권도인들 모두가 염원하는 국제태권도사관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마음 써줄 것"을 강조했다.

무주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으로 국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사진=진안군>

진안군,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마무리

진안군이 영농 부산물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운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처리를 돕고 불법소각을 줄이기 위해 (사)전농전북도연맹 진안군농민회 주관으로 진행됐다.

파쇄지원단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총 36ha의 영농부산물을 파쇄하며 농업인들이 겪는 처리 부담을 덜어줬다.

지원 대상 작목은 사과, 포도 등의 전정 가지와 고추, 들깨 등의 수확 후 잔여 부산물로, 이를 파쇄해 퇴비화해 자여 순환형 농업에도 기여하고 있다.

더불어 불법소각 방지와 산불 예방

을 위해 홍보자료를 제작·배포하고, 새해농업인교육 및 농업인단체 교육 등을 통해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과 파쇄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하반기 영농부산물 파쇄 신청은 10월부터 접수를 받으며, 일정 조율 후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노금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통해 농한기마다 반복되는 소각을 사전에 차단하고, 파쇄된 부산물을 자연퇴비로 활용하는 등 친환경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장수군공무직노조, 단체협약 체결

장수군과 전국공공운수노조장수군공무직지부는 지난 2일 장수군청 회의실에서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은 최훈식 군수, 윤동수 지부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 교섭대표 인사, 단체교섭 경과보고, 단체협약서 서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노사는 지난해 5월 상견례 이후 약 10개월 동안 총 3차례의 실무교섭과정을 거쳐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단체협약서에는 △근로면제 시간 확대 △명예퇴직제도 도입 △정년퇴직자에 대한 유급 특별휴가 신설

등 총 13장의 본문 90개, 부칙 8개 조항으로 구성된 내용이 담겼다.

윤동수 지부장은 "조합원들이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더욱 협력적인 노사 관계를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교섭은 노사 양측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큰 갈등 없이 원만하게 마무리 됐다"며 "앞으로도 노사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보석보다 빛나는 보석함, 익산보석박물관서 만난다

대통령의 선물부터 장인의 손끝에서 완성된 예술품까지, 보석보다 더 빛나는 '보석함'의 이야기가 익산에서 펼쳐진다.

익산시 보석박물관은 4일부터 6월 29일까지 기획전시 '보석함, 귀중한 것을 담는 함'을 개최한다. 보석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되는 전시는 △1부 '대통령의 보석함' △2부 '명장이 제작한 보석함' △영상관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으며, 작품 43점을 선보인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 10분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인재육성재단, 고교생 서울 소재 대학 탐방

(재)완주군인재육성재단(이사장 유희태)이 3일부터 오는 5일까지 관내 고등학교 24명을 대상으로 서울지역에서 대학 탐방활동을 진행한다.

참여자들은 서울권 주요 대학인 서울대, 중앙대, 성균관대를 견학하고 소그룹 멘토링 활동을 한다. 재단은 이번 대학탐방활동을 통해 대학 생활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과 정보, 포레들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경험의 기회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주=김명곤기자

(유)제이산업, 산불 피해 복구 성금 300만 원 기탁

익산시는 (유)제이산업(대표 양승용)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고 3일 밝혔다.

기탁된 성금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지원과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유)제이산업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로,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저소득 가구 지원과 익산사랑장학재단 기탁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임실군애향장학회, 장학금 2억8천5백만 원 전달

장학증서수여식 개최 대학생·고등학생 120명

(재)임실군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가 지난달 29일 장학생으로 선발된 대학생과 고등학생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임실군 애향장학생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임실군애향장학회는 지난달 20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학생 90명과 고등학생 30명, 총 120명의 애향장학생을 선발했으며, 선발된 애향장학생에게는 총 2억8,500만원의 예산으로 대학생 1인당 300

만원,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의 장학금이 이달 중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임실군애향장학회는 1995년 설립해, 군민과 향우회 등 임실군 출신들의 꾸준한 기탁금과 군 예산으로 서울장학숙 운영, 봉황인재학당 운영, 학원위탁 프로그램 등 장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사장인 심민 군수는 "애향장학생으로 선발되신 학생 모두가 임실군을 넘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재)임실군애향장학회가 지난달 29일 2025년도 임실군 애향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사진=임실군>

김충 고창군수협 조합장, 은탑산업훈장 수상

수산인의 날 맞아 어업 발전 공로 인정

지난 1일, 수산인의 날을 맞아 김충 고창군수협 조합장께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조합장이 어업 발전과 어민들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여러 분야에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조합장은 특히 한정면허지 개발을 통해 지역 어민들에게 안정적인

어업 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러한 노력은 어민들의 생활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조합장은 수산종자 보급과 해안정화 활동을 통해 어장 조성 및 보호에 앞장섰다.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이러한 활동은 어민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해양 생태계 보호에도 큰 기여를 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충 고창군수협 조합장 은탑산업훈장 수상



2025 실버마이크 온가람실버예술단 공연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지역문화진흥원과 광주에 있는 (주)상상오(대표 임양진)가 주관하는 2025년도 전라·제주권 실버마이크 공연이 전주소재 온가람실버예술단을 비롯한 예술단체들이 공연을 개최했다.

예년에 비해 이른 4월에 실시된 이번 실버마이크 공연은 60세 이상의 실버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예술가들이 속해 있는 자

역량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예술 창작자들로 고령화 시대에 예술가들이 현장에서 은퇴했음에도 활발한 예술 공연 활동을 할 수 있는 무대 공연 사업으로 이루어졌다.

올해는 '무대 위에 핀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를 통해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는 문화가 있는 날의 중간에 집중적인 공연예술이 펼쳐지게 된다.

/최준호 기자

제일헬스사이언스 후원, 파스 복지관 전달

전북특별자치도 약사회 남원지부(이하 남원시 약사회)는 지난달 31일, 제일헬스사이언스(주)에서 후원 받은 파스 3,000개(4,500만원 상당)를 남원시 노인복지관에 전달하였다.

남원시 약사회 임진희 회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

는 의약품 중 하나인 파스는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아 남원시 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뿐만 아니라 남원 지역 내 어르신 3,000명에게 배분될 예정이다.

남원시 약사회 임진희 회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겠다"라고 밝혔다.

/남원=원하복 기자



삼흥산업·형제콘크리트 등, 김제시에 3천만 원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3일 유한회사 삼흥산업·형제콘크리트(대표 송영기), 유한회사 삼흥에코그린(대표 송명희)이 총 3,000만 원을 기탁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뜻깊은 나눔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삼흥산업과 형제콘크리트가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 ▲형제콘크리트가 김제시사랑학금 500만원, ▲(유)삼흥에코그린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을 기탁했다. 기탁된 성금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그리고 고향 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각각 활용될 예정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정읍 새마을금고 7곳, 성금 1,000만원 기탁

정읍지역 새마을금고가 소성면 산불 피해 이재민들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100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정읍지역 7개 새마을금고(정읍, 연지, 상명, 신태인, 태인, 감곡, 산외)는 지난 2일 최근 소성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정읍시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탁금은 각 지역 새마을금고가 심시일반 정성을 모아 마련된 것으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정읍=김정현 기자

군산 성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산불 피해 복구에 2백만 원 기탁

군산시 성산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위해 성금 2백만 원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주민자치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위원들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고통받는 산불 피해 주민들에 대해 깊은 위로를 표하며,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에 미력이나마 보태고자 힘을 모았다.

/군산=지송길 기자



〈一事一言〉



뭘 바꿔야 하는지 가르쳐준 내란 윤 정권(1)

강수돌

고려대 명예교수

‘끔찍한’ 12·3 내란(쿠데타)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3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복귀했다. 헌법재판소가 그를 ‘구출’해준 셈! 민주당 등 야당이 탄핵 소추한 데 대해 4명의 재판관이 각각을, 2명은 각하를, 1명만 인용했다. 이 결정을 듣고 나는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의심한다. 어떤 면에서 이 모든 게 ‘쇼’ 같다는 느낌도 든다.

현재 판결에 대한 의문

“이 모든 게 쇼 같다”

그 옛날 같으면, 그날의 ‘끔찍한’ 사건 이후 뒤처리를 ‘민주적’으로 한답시고 100일이 넘도록 거추장스럽고도 지루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그 ‘나쁜 녀름’을 그저 명석에 돌돌 말아 몽둥이로 패고 나면 상황이 진작 끝났을 텐데 말이다.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나 큰일인데, 내 속에서도 천불이 난다. 가히 조선 말 ‘민란’ 분위기가 들 불처럼 퍼질 기세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상당한 다수’가 그렇다.

솔직히 말하면 법이니 민주적 절차니 하는 것들은, 그 자체로는 중요할지 모르나 실제 그것이 운용되는 방식을 보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는 생각을 한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눈에 보기에, 너무나 뻔한 사건도 불필요하게 값비싼 변호사까지 써가며 기득권 내지 자기를 편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처리되기 일쑤다.

반면, 누군가 배고파 빵 하나 훔치거나 버스 기사가 동전으로 커

피 한 잔 마셨다고 하면 마치 ‘준법’을 철저히 강조하듯 가차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다. 게다가 ‘변호사 시장’은 왜 그렇게 비싸고도 복잡한가?

차라리 수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시장 바닥에서 보통사람들이 감론을박을 벌여 결판을 내는 게 훨씬 빠르고도 정확할 것이란 느낌!

반면, ‘검찰공화국’에선 법과 양심이 더 빨리 증발해 버린 듯하다. 누가 보아도 뻔한 일들이 상식을 배신한다.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은 지연되고, 불법을 예사로 저지른 감사원과 감사들에 대한 탄핵도 기각됐다.

심지어 힘들게 구축시킨 내란 수괴조차 법원과 검찰의 공모로 ‘탈옥’에 성공했으며, 내란 사태의 여러 비밀을 풀 열쇠 격인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번번이 기각됐다. 그나마 3월 26일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 선고된 것은 천만다행이다.

물론, 그 직전에 이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화기에애하게 만난 것 자체가 이미 무죄를 암시한다고 본 이들도 있긴 했다.

이런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과연 ‘탄핵’ 이후 우리는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하나, 하는 질문을 또 던지지 않을 수 없다. 뎌 먼저 나는 민주주의의 근본 토대가(헌법 19조에 보장된) 양심과 진실이라 믿는다.

그런데 이 양심과 진실은 사회적 관계나 상황, 맥락에 따라 왜곡되기 쉽다. 따라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철저히 이뤄야 한다.

언론개혁을 통해 가짜뉴스나 극우 유튜브가 설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거짓, 조작, 허위, 폭력, 증오, 혐오 등은 ‘질대로’ 허용해선 안 될 마지노선이다. 사법개혁을 위해선 전관예우나 검언유착을 척결해야 한다. 경찰, 검찰, 판사가 ‘벌, 양심, 원칙’을 배신했을 때는 죽을 때까지 유사 직종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언론개혁·사법개혁 철저

이런 식의 언론개혁과 사법개혁을 가장 먼저 해야 비로소 양심과 진실이 살아 숨 쉬는 세상이 된다. 그래야 사회로 인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으로, 다양한 정치적 견해들이 실제 정치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일례로, 돈과 연줄의 선거가 아니라 철학과 프로그램 중심의 선거를 하면서도 사표(死票)를 방지하려면, 의회 의원들은 완전한 정당비례대표제(정당에만 투표)를, 대통령과 지자세장은 결선 투표제(50% 이상이 나올 때까지)를 도입해야 한다.

사법수장 투표로 뽑으면

입해야 한다.

이 참에 검찰총장, 법원장, 감사장, 현재 재판관 등은 판검사 공동체 구성원들이 전체 투표로 뽑으면 좋겠다. 이렇게 언론, 사법, 선거 개혁이 된 바탕 위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사회 개혁을 논할 수 있다.

그 다음 단계로 나는 우리네 일상생활의 민주화를 위해 4가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본다. 그

것은 교육개혁, 노동개혁, 복지개혁, 농촌개혁이다. 다른 개혁 분야들도 많지만, 이 4대 개혁이 이뤄지면 자연스레 파급효과를 낼 것이다.

교육개혁의 키워드는 ‘개성 있는 평등화’다. 지금처럼 돈과 암거래 테스트로 일류대 가는 ‘값비싼 코미디’는 그만두고 아이들의 개성과 인성을 살리는 교육을 해야 한다. ‘디지털 교과서’도 결국은(첨단산업의) 새로운 돈벌이에 이용만 당하고 급세 무용지물이 된다. 교육은 돈벌이가 아닌 살림살이의 문제다.

차세대 노동력이 아닌 인격체를 길러야 한다. 물론, 필수 교과목은 있어야 할 텐데, 나는 1) 헌법 2) 근현대사 3) 문학·철학 4) 자본주의 교육은 초·중·고에서 단계별로 차곡차곡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기억력 경쟁이 아닌 비판적 이해가 핵심이다. 그 위에서 아이들의 개성과 꿈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한다. 다양한 교육이다. 일류대 개념도 없애야 한다. 아이들이 재미, 재주, 의미에서 나름의 꿈을 꾸게 도와주고, 그 어떤 꿈을 꾸든 동등하게 존중, 지원해야 한다.<계속>

본 칼럼은 시민언론 민들레에게 게재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외부원고 및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현재 탄핵 선고 - 尹 지지자들 폭동을 경계한다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 이후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지난 1월 윤석열 구속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집단 난입, 폭동 사태가 재발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결정은 헌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진 최종적이고 확정적인 판단이며, 이에 대한 불복은 법과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탄핵 심판 최종 진술에서도 사과나 승복의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현재 결정을 앞두고 극렬 지지자들을 고무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며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 같은 태도는 지지자들로 하여금 현재 결정을 존중,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를 조성케 하고 나아가 법치를 부정하는 물리적 충돌을 부추길 가능성을 배가시킨다.

이미 경찰은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현재 반경 150m 이내의 접근을 불허하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다. 이는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발생했던 폭력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렬 지지자들이 폭동을 감행할 경우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하며 이는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직접 현재 결정을 존중, 승복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정치적 입장이 어떻든 간에, 국가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윤석열로서는 최소한의 도리다. 그러나 그가 끝내 이를 거부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면 이는 사실상 폭력을 묵인하는 신호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지지자들 또한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어떠한 정치적 신념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반대와 저항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표출되어야 한다. 극단적 행동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옹호하는 가치마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관계 당국은 어떠한 폭력도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만약 불법적인 폭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하며, 배후에서 선동, 조종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한 단죄가 필요하다. 이는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려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 인용은 대한민국이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국가 운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다. 이를 계기로 국민은 분열과 갈등이 아닌 화해와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 지금 세계 각국은 한국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법과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현재 선고 이후의 모든 행동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이제는 냉정한 이성이 필요하다. 국가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극단적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모든 국민이 법치의 원칙아래 한 걸음씩 나아가며 더 이상 대한민국이 정치적 혼란과 폭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역사적 순간을 맞이한 오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또 한 번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금요시선

봄길 / 정호승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시인 약력 :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대구 대륜고를 거쳐 경희대 국어국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희’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침성대’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로 각각 당선됐다. 1979년 첫시집 ‘슬픔이 기쁨에게’를 출간했다. 제3회 소월시문학상, 제10회 동서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 독자광장 |

농기계, 편리함 속의 위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촌 지역에서는 경운기, 트랙터 등 농기계 사용이 급

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운전 부주의, 불안정한 지형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전복, 추락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라북도 내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약 50%에 이르며, 이는 농업 인구의 절반이 고령층이라는 의미이다.

농촌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농기계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고령 농업인의 경우 농기계 조작 미숙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더욱 커지는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농기계 관련 연평균 사고 건수는 1,243건이며, 이 중 사망자는 76명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농기계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보다 8배 이상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사고의 30%가 가을 수확철인 9~11월에 집중되며, 주요 사고 원인은 도로 주행 중 충돌, 작업 중 전복, 조작 미숙 등이었다.

농기계 사고는 고령 농업인의 비율이 높은 농촌 지역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대부분의 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안전한 영농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 수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

첫째, 농기계 운전 중에는 절대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음주 후에는 농기계를 운전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 도로 주행 시 반드시 등화장치와 반사판을 부착해야 한다. 농기계는 속도가 느리고 차체가 크기 때문에 야간이나 안개가 낀 날에는 다른 차량이 인식하기 어렵다.

안전등과 반사판을 부하면 사고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셋째,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농기계 조작 미숙은 사고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특히, 고령 농업인은 신체 반응 속도가 느리고 조작 실수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안전 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마을 방송을 활용해 사고 예방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농기계 사고는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재난방송 시스템이나 마을 방송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다섯째, 좁은 농로와 곡선도로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

농기계는 일반 차량보다 무게 중심이 높아 급회전이나 급정거 시 전복될 위험이 크다.

특히 좁은 길이나 커브길에서는 더욱 조심해서 운행해야 한다.

여섯째, 농기계를 사용하기 전 반드시 사전 점검을 해야 한다.

농기계의 덮개와 조작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브

레이크, 타이어 상태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다.

사소한 고장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작업복 착용에도 신경 써야 한다.

헐렁한 옷이나 긴 끈이 달린 복장은 기계에 말려 들어가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소매나 바지 밑단을 단단히 여미고, 장갑과 보호 장비를 제대로 착용해야 한다.

농기계는 우리 농업의 필수적인 도구이지만, 안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순간의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업인 스스로 안전 의식을 갖고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만약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안전한 영농철을 위한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오늘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농작업을 진행하기를 바란다.

/정음소방서 119구조대장

이남영 소방경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5.09.04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반)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지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영지시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고창지국 010-2258-3734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팔복지시 010-3015-4791	정읍지국 010-2800-2934	완주지국 010-5312-7293
송천지시 010-5242-3694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벚꽃 터널 속 낭만의 밤 고창군 제3회 벚꽃축제

사계절 화사한 꽃과 싱그러운 자연이 아름다운 고창군에서 '제3회 벚꽃축제'가 열린다.

고창벚꽃축제는 '기다렸나, 봄'을 주제로 전북 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석정리 727번지 일대에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계속된다. 석정 벚꽃길은 수령 20년 이상 된 벚나무들이 1km에 걸쳐 장관을 이룬다. 해마다 관광객들이 찾는 유명 벚꽃 명소 중 하나다.

야간 벚꽃놀이는 고창이 최고예요

야간에 조명에 비친 석정 벚꽃길은 봄철 최고의 볼거리로 평가되고 있다. 이곳에 특수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 야간 불빛에 비친 벚꽃 터널의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할 예정이다.

올해 축제는 지난해보다 조명구간이 확대되고, 하트·천사의 날개 등 다양한 포토존 조명을 추가 설치해 방문객들에게 더욱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왕벚꽃 터널 등 벚꽃 구간에는 벚꽃과 어울

4월4일~6일 사흘간 열려
석정 벚꽃길 1km 장관

리는 순백색의 아름다운 LED조명이 설치되고, 100여 그루의 수목들에는 흡사 별빛이 쏟아지는 느낌의 트리조명과 바닥경관 조명이 연출된다.

첫날(4일)에는 어린이공연(서커스, 버블쇼)이 벚꽃축제 개막을 알린다. 저녁에는 청사초롱을 들고 벚꽃길을 걷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둘째날(5일)에는 어린이 대상 인가캐릭터(브래드 이발소) 싱어송 콘서트와 열리고, 오후에는 14개 읍면 단합 계임대회(스피드 컵쌓기 등)이 펼쳐진다. 저녁 7시에는 주무대에서 개막식이 열리고, 인기가수(케이시, 케이윌) 초청 공연도 예정돼 있다.

축제 마지막날(6일)에는 고창농특산물을 활용한 가족 방문객 대상 요리만들기 체험 프로

그램인 '고창벚꽃 200인의 요리사! 고창에 꼬치다'가 열린다. 오후에는 군민대상 노래, 춤, 악기연주, 공연 프로그램으로 화려했던 축제를 마무리 한다.

방문객은 편하게, 벚꽃은 아름답게

고창군은 방문객 편의와 아름다운 벚꽃을 선사하기 위해 초간장 상태로 주차장에 걸친 교통 대책회의와 주·야간 시물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이 마음 편히 찾아올 수 있게 터미널부터 축제장까지 매일 30분간격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인생샷 찰칵' 고창의 대표적 벚꽃명소 '고창읍성·고창꽃동산'

고창읍성은 조선 단종 원년(1453) 외침을 막기 위해 백성들이 직접 자연석을 쌓아 만든 성곽이다. 매년 이른 봄이면 화사한 순백의 벚꽃이 곡선의 성곽과 어울려 절경을 이룬다.



봄바람에 벚꽃잎이 함박눈처럼 흩날리는 성곽 위를 걸으면서 봄날 최고의 호사를 누리보자.

교촌마을 뒤편 꽃동산(배수지)도 고창 최고의 벚꽃명소로 손꼽힌다. 동네를 에워싼 산자

락에 산벚꽃이 피어나며 희고 붉은 꽃세상이 열린다. 꽃동산 정상에 서면 고창읍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멀리 고창천과 읍성의 꽃잔치가 근사한 풍경을 만든다.

/고창=백종규 기자

NH 농업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진포건강미
(군산농협)

미성청결미
(서군산농협)

못잊어신동진
(옥구농협)

옥이슬
(옥산농협)

아리울
(동군산농협)

큰들의꿈
(대야농협)

옥토진미
(회현농협)

군산짬뽕 라면
(군산원예농협)

농협중앙회 군산시지부
원연연 지부장

군산농업협동조합
박형기 조합장

서군산농업협동조합
김기수 조합장

옥구농업협동조합
전봉구 조합장

옥산농업협동조합
박규석 조합장

동군산농업협동조합
박영근 조합장

대야농업협동조합
한전수 조합장

회현농업협동조합
김기동 조합장

군산원예농업협동조합
고계곤 조합장